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밸브 · 기타기계류 -



CONTENTS

목 차

요 약

I. 벨브(인도) / 1

- | | |
|---|-----------|
| 1 | 1. 시장변화요인 |
| 3 | 2. 경쟁동향 |
| 5 | 3. 시사점 |

II. 벨브(러시아) / 6

- | | |
|----|---------------------|
| 6 | 1. 시장변화요인 |
| 8 | 2. 제품반응 / 수입 · 생산동향 |
| 13 | 3. 시사점 |

III. 벨브(대만) / 14

- | | |
|----|-----------|
| 14 | 1. 시장변화요인 |
| 15 | 2. 경쟁동향 |
| 17 | 3. 시사점 |

IV. 화학기기(UAE) / 18

- | | |
|----|-----------|
| 18 | 1. 시장변화요인 |
| 19 | 2. 경쟁동향 |
| 21 | 3. 시사점 |

V. 금속처리용기기(말레이시아) / 22

22	1. 시장변화요인
24	2. 경쟁동향
26	3. 시사점

VI. 플라스틱 금형(러시아) / 27

27	1. 시장변화요인
28	2. 경쟁동향
32	3. 시사점

VII. 선박기자재(싱가포르) / 34

34	1. 시장변화요인
35	2. 경쟁동향
37	3. 시사점

요 약

- 지난 20년간 한국은 무역규모 성장률(CAGR) 10%, GDP 1조 달러(2007, 2008, 2009), 시가총액 1조 달러(2007, 2010, 2011)를 달성하며 세계 9위의 무역 강국으로 발돋움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낮은 수출 중소기업의 비중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은 한국경제호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특히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국가들의 수출중소기업 비중(10년)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47%에 불과하여 영국 11%, 독일 10.9%, 네덜란드 10.1% 등 경쟁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 동 조사의 취지는 中企 수출비중이 평균 이상인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한 국별 10개 품목을 선정하여, 현지 시장의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5차 보고서에는 밸브 및 기타기계류를 주제로 주요 7개국의 시장변화 요인, 경쟁동향 및 시사점을 우리기업에 전파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코자 한다.

■ 밸브/기타기계류

-
- ① 밸브(인도) : 중국산 저가제품의 시장 장악. 차별성을 갖춘 기술력 확보 관건
 - ② 밸브(러시아) : 전력, 가스 등 연관 산업의 발달, 제품 인증 확보 및 현지 중개 거래 필요
 - ③ 밸브(대만) : 제품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사양 특수용도 밸브 특화가 시급
 - ④ 화학기기(UAE) : 현지 기후 고려한 맞춤 제작 및 A/S 대응방안의 체계화 시급
 - ⑤ 금속처리용 기기(말레이시아) :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 제도로 현지 수입업체 발굴 필요
 - ⑥ 플라스틱금형(러시아) : 가격대비 고품질, AS서비스 고평가로 한국제품 시장 점유율 1위
 - ⑦ 선박기자재(싱가포르) :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인지도 및 네트워크 구축 필요
-

I. 밸브(인도)

1 시장 변화요인

□ 인도의 급속한 산업화 진행

- 인도 밸브 시장은 인도 정부의 전력, 가스, 오일, 화학 등 인프라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 및 지원 계획에 따른 과급효과로 수요가 급증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중
 - 인도 정부는 2012년 예산안에서 제 12차 개발계획 인프라 개발을 위해 500만 크로아(약 1조 204억 달러) 투입계획 발표
 - LNG 저장시설과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해 2012년 석유·가스분야 예산안에서 금융지원제도(Viability Gap Funding)를 도입
- 인도 밸브 시장은 수요 증가에 따라 현지 업체들의 생산량 및 기술력이 제고되고 있으나, 제조업체들의 약 95%가 중소 및 영세기업들로 아직 기술력이 부족하고 저렴한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어, 고품질의 제품 수요에는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
 - 밸브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분야는 유전 및 가스 탐사와 철강 산업이며, 현지 제품보다는 해외의 기술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의 고품질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 단, 인도 시장은 전반적으로 품질보다는 가격을 중요시하여, 중국 및 현지의 저가 제품에 대한 수요도 큰 상황

<인도 밸브 시장 현황>

(단위 : 천 개, 백만 달러)

	2007년	2008년	2009년
생산량	N/A	N/A	94,722.4
판매총액	666.08	655.94	510.66
시장규모	804.92	834.3	683.08
국내 소비량	470.84	376.4	338.96

자료원 : CMIE(Centre for Monitoring Indian Economy), April 2011

- 유전 및 가스 분야 외 에너지, 수력, 오·폐수 등의 분야에서도 고품질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펌프, 밸브, 콤프레셔 제품은 2011~15년 동안 연간 15~17%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밸브(HS Code 8481) 품목 중 HS Code 8481.1000, 8481.2000, 8481.3000, 8481.4000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별도의 인증 없이도 인도 수출 가능
 - 상기 4개 품목에 대해서는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에서 발행하는 BIS 마크 취득이 필수
 - 밸브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는 25.852%이나 8481.8041, 8481.9010에 해당하는 제품은 12.034%의 관세가 적용

2 경쟁 동향

□ 인도 밸브 시장은 현지 기술력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

- 인도 밸브 시장의 제조업체들은 기술력 부족으로 고품질의 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메이저 기업이 아니면 타 현지 업체들에 비해 높은 가격의 제품을 판매하기가 어려움.
- 인도 현지 제조업체들의 제품 경쟁력이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으며, 수입 제품과 품질은 비슷하며 가격은 더 저렴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 인도의 주요 밸브 생산 업체로는 BHEL(Bharat Heavy Electricals Ltd.)과 L&T(Larsen & Toubro)가 있으며 이 외 KBL(Kirloskar Brothers Ltd.) 등이 존재

<밸브 제조업체 판매 및 점유율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9년	2010년	시장 점유율(%)
Bharat Heavy Electricals	83.62	91.53	12.24
Larsen & Toubro	82.07	114.25	12.02
Audco India	73.06	N/A	10.70
Virgo Engineers	51.24	N/A	7.50
GTN Engineering	34.16	N/A	5.00
KSB Pumps	17.02	N/A	2.49
Fisher Sanmar	16.83	N/A	2.46
Kirloskar Brothers	15.53	N/A	2.27
Tyco Sanmar	13.91	N/A	2.04

자료원 : CMIE(Centre for Monitoring Indian Economy), April 2011

- 인도 상무부 산하 DGCI&S에 의하면, 밸브(HS Code 8481) 품목에 대한 수입액은 2008년 9억 2,195만 달러 규모에서 현지 업체들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확보로 인해, 2009년 5억 9,933만 달러로 하락하였으나, 2010년 다시 중국산의 수입 증가로 회복세를 보이며 7억 5,990만 달러로 상승
-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아 2010년 중국 제품 수입액은 1억 3,622만 달러로 전체 수입량 대비 17.93%를 차지
- 수입 대상국 2위인 독일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010년 1억 2,242만 달러로 16.11%의 점유율을 차지
- 한국 제품 수입액은 2,287만 달러로 점유율 약 3%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수입 대상국 중 8위에 해당하는 규모

<밸브 수출입 현황>

(단위: 톤, 백만 달러)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수출량	44,307.3	47,286.6	33,529.5
수출총액	334	457.9	344.12
수입량	7,179.6	9303.5	991.3
수입총액	138.84	178.36	172.44

자료원 : CMIE(Centre for Monitoring Indian Economy), April 2011

주 : HS Code 8481 기준

3

시사점

□ 한국 밸브 제품에 대한 꾸준한 수요 증가

- 2009년 펌프, 밸브, 콤프레셔 등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한국 밸브 제품에 대한 수요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
 - 기술력을 확보하여, 저렴한 중국 및 현지 제품들보다 가격 외의 다른 면에서 월등히 뛰어나다는 점을 인도 바이어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음.
- 저렴한 중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밸브 수입 대상국 1위인 중국을 제외한 2위부터 10위까지 국가는 독일, 미국, 일본,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한국, 스위스, 싱가포르 등으로 모두 기술력 있는 고품질 제품 수입국
 - 앞으로 저가 제품을 취급하는 중국 및 현지 업체들보다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 고급기술을 습득하여 품질의 경쟁력을 높이는 인도 현지 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전망

II. 밸브(러시아)

1 시장 변화요인

□ 견실한 경제성장으로 밸브시장 확대 추세

- 2010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회복으로 산업용, 가정용 밸브 수요 확대
- 2010년 러시아의 밸브 수입량은 전년대비 75.3%의 급증, 2011년은 5.5% 증가

<러시아 밸브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톤,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수입액(백만\$)	750.4	1,315.1	1,387.6
전년대비 증감율(%)	-17.6	75.3	5.5
수입량(톤)	65,829.3	111,404.0	123,524.9
전년대비 증감율(%)	N/A	69.2	10.9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자료를 근거로 모스크바무역관 재구성

주1) HS Code 848180의 하위 8단위 Code별 수치 기준/HS Code 8481.8099, 8481.8050은 미포함

주2) 2011년 수입량에서 자료부족으로 HS Code 8481.8059 미포함

- 밸브 품목중 파이프, 보일러, 탱크, 통용 볼 및 플러그 밸브(HS Code 8481.8081)가 수입량의 29.3%를 차지해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으며, 그 뒤를 게이트밸브(8481.8063) 14.7%, 믹싱밸브(8481.8011) 14.7%, 버터플라이밸브(8481.8085) 8.3%가 차지
- 2011년 러시아 수입 밸브류 중, 중앙난방용 온도 컨트롤밸브(HS Code 8481.8031), 글로브밸브(8481.8071), 버터플라이밸브(8481.8085), 다이어램밸브(8481.8087) 등의 수입량이 전년대비 대폭 증가

<밸브류 HS Code별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H.S. Code	품 명	2010		2011		증감율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총 합	1,315.1	100	1,387.6	100	5.51
8481.8011	싱크대, 세면대, 비데, 욕조 및 기타 구조물용믹 믹싱밸브(Mixing Valves)	175.3	13.3	193.3	13.9	10.23
8481.8019	탭(Taps), 콕(Cocks) 및 싱크대, 세면대, 비데, 욕조 및 기타구조물용 밸브 (믹싱 밸브 제외)	27.2	2.1	25.3	1.8	-7.18
8481.8031	중앙난방 위한 온도조절 밸브	7.5	0.6	12.5	0.9	<u>65.83</u>
8481.8039	중앙난방 라디에이터용 밸브 (온도조절밸브 제외)	11.4	0.9	13.5	1.0	18.41
8481.8040	공기타이어와 내부 튜브용 밸브	2.4	0.2	2.3	0.2	-5.59
8481.8059	프로세스 컨트롤(조절) 밸브 (주2제품 제외)	163.1	12.4	213.5	15.4	30.91
8481.8061	파이프,보일러,탱크,통용 주철재질의 게이트밸브 (주1 제품은 제외)	32.7	2.5	41.8	3.0	27.60
8481.8063	파이프,보일러,탱크,통용 강철재질의 게이트밸브 (주1 제품은 제외)	171.7	13.1	204.0	14.7	18.79
8481.8069	파이프,보일러,탱크,통용 기타재질의 게이트밸브 (주1 제품은 제외)	9.9	0.8	6.4	0.5	-35.32
8481.8071	주철재질의 글로브 밸브 (주2제품 제외)	10.0	0.8	14.0	1.0	<u>40.28</u>
8481.8073 ^{주3}	강철재질의 글로브 밸브 (주2제품 제외)	87.6	6.7	76.0	5.5	-13.24
8481.8079	기타재질의 글로브 밸브 (주2제품 제외)	33.7	2.6	52.0	3.8	<u>54.45</u>
8481.8081	파이프, 보일러, 탱크, 큰 통(vat)용 볼 및 플러그밸브 (주1 제품은 제외)	502.8	38.2	415.3	29.9	-17.41
8481.8085	파이프, 보일러, 탱크, 큰 통(vat)용 버터플라이 밸브 (체크밸브는 제외)	78.2	6.0	115.5	8.3	<u>47.66</u>
8481.8087	파이프, 보일러, 탱크, 큰 통(vat)용 다이어플램 밸브	1.5	0.1	2.3	0.2	<u>51.07</u>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주1) 탭(tap), 콕(cock), 싱크대, 세면대, 비데

주2) 온도조절기, 압력감속밸브, 올레오 유압(Oleohydraulic) 또는 공압 전달 장치 컨트롤 밸브

주3) HS Code 8481.8073 글로브밸브는 차량에도 쓰임.

□ 밸브 수요가 높은 산업의 발전

- 전력, 가스, 냉난방 분야에 대한 고정투자 증가로 인해, 밸브 수요 역시 확대 예상
- 러시아 정부의 높은 에너지경제 의존 특성과 국제대형이벤트 개최 등으로 인해 건설 및 부대시설 건설 수요가 많음

□ 유가하락으로 하반기 러시아 경제 침체 가능성

- 유럽 재정위기 및 중국과 미국의 실물경제 하향 가능성으로 인해 국제 유가는 하락중이며 이는 산유국인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음.
- 이로 인해 고정자본투자율 하락과 루블화 평가절하에 따른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2 제품반응 / 수입 ■ 생산동향

□ (한국제품에 대한 반응)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밸브 수출은 미미

- 우리나라의 2011년 對러시아 밸브 수출액은 9.6백만 달러로, 전체 러시아 밸브 수입 시장에서 0.7%를 차지
 - 중국 25.5%, 독일 12.4%, 이태리 11.2%, 미국 5.6% 차지
 - 對러시아 밸브 수출 중 강철재질용 글로브 밸브(4백만 달러)와 볼·플러그 밸브(3백만 달러)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음.
- 작은 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제품의 품질에 대한 평가와 지명도는 높음.
 - 한국 회사 KMC, Hydrosta, Hysco사(社)는 시장에서 지명도가 높은 편

<러시아 주요 바이어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견해>

회사명①	SMEnergo, LLC
회사개요	· 파이프라인용 밸브를 수입하는 무역업체 · 러시아, CIS국가외에 한국산제품을 수입중에 있으며 러시아 업체 Malen LLC사 제품의 러시아내 독점 공급업체
홈페이지	www.sm-energo.ru
전화	(7-499) 408-1231
팩스	(7-499) 408-1231
이메일	info@sm-energo.ru
전화인터뷰자	Mr. Dmitry Borisovich Smirnov, Director
시장에 대한 견해 및 시장확대 제언	- 한국업체 제품을 다른 러시아 업체로부터 구매중 - 중국제품이 저가이기는 하나 한국제품 역시 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이 있음. 한국업체와의 직거래를 희망하며 특히 플러그, 버터플라이 밸브 거래를 희망 - 대형조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가치가 매우 중요

회사명②	Technoprom trade
회사개요	· 밸브류를 포함해 산업 장비, 부품류를 취급중인 수입업체 · 한국산 볼 밸브 수입중
홈페이지	www.tptd.ru
전화	(7-495) 660-2234, 660-2235, 643-27-79
팩스	(7-495) 660-2234
이메일	info@tptd.ru
전화인터뷰자	Mr. Alexander Vyacheslavovich Ukhabov, General Director
시장에 대한 견해 및 시장확대 제언	- 한국산 제품의 안전성, 품질, 경쟁력있는 가격 및 짧은 납기 준수에 대해 높게 평가 - 러시아 인증마크 외에 유럽, CIS국가의 인증 마크 획득은 시장 초기 진입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회사명③	Promenergokomplect, LLC
회사개요	· 전력분야의 엔지니어링 회사로 생산 장비까지 공급중인 회사 · 주요 입찰 프로젝트에 활발히 참여 중
홈페이지	www.prekom.ru/eng
전화	+7-499-558-0204
팩스	+7-495-695-5794
이메일	dmitriyklishin@gmail.com
전화인터뷰자	Mr. Dmitriy Klishin, Assistant to the President
시장에 대한 견해 및 시장확대 제언	- 입찰프로젝트 참여를 위해서는 구매자의 요구에 맞는 모든 서류를 적기에 제출하는 것이 필수 요건 - 그러나 러시아 입찰프로젝트의 경우 정보 공개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고 언어 문제로 인해 외국 업체의 직접 참가는 매우 어려우므로 러시아 주요 업체와의 협력을 추천

<러시아 벨브 주요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Country	수입액			비중			2011/2010 증감율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전체	750.4	1,315.1	1,387.6	100	100	100	5.5
중국	146.9	293.9	353.2	19.6	22.4	25.5	20.2
독일	113.7	296.1	170.8	15.2	22.5	12.3	-42.3
이태리	74.7	199.4	154.1	9.96	15.2	11.1	-22.7
미국	36.6	64.1	77.2	4.9	4.9	5.6	20.4
헝가리	13.9	25.9	74.7	1.9	1.97	5.4	188.4
체코	50.8	59.2	70.6	6.8	4.5	5.1	19.3
우크라이나	32.8	44.2	61	4.4	3.4	4.4	38.0
네덜란드	43.2	33.2	60.3	5.8	2.5	4.4	81.6
프랑스	33.9	44.8	55.1	4.5	4.3	3.97	23.0
덴마크	15.8	29.7	41.4	2.1	2.3	2.99	39.4
대한민국	3.4	4.9	9.6	0.5	0.4	0.7	95.9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주1) HS Code 848180의 하위 8단위 Code별 수치 기준/HS Code 848180.99, 848180.50은 미포함

□ (러시아) 대다수의 업체가 경쟁력 취약

- 200여개의 러시아 밸브 생산업체중 약 10개사 정도만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
 - 대부분의 러 생산업체는 기술력 부재, 긴 작동시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등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편
- 높게 평가되는 러시아 밸브 생산업체(5개사)

<러시아 주요 밸브 생산업체>

회사명	개 요
Bologoe Valve Maker	· 1978년 설립, 볼로그예(트베리주) 소재 · 볼 및 플러그 밸브, 기타 파이프 피팅 생산 · 연간생산량 : 1,400백만개
Blagoveshensk Valve Plant	· 1949년 설립, 블라고베스네스크(바슈코르스탄 공화국)소재 · 파이프라인용 밸브
Penza Valve Maker	· 1941년 설립, 펜자(펜자주) 소재 · 볼 및 플러그 밸브 생산 등
Malen, LLC	· 1994년 설립,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 파이프라인용 볼 밸브
Murom Valve Maker	· 1998년 설립, 무롬(블라디미르주) 소재 · 볼, 버터플라이 밸브 생산

<러시아 현지 밸브 생산 동향>

(단위 : 백 개, %)

품명	2009년	2010년		2011년	
	생산수량	생산수량	증감률	생산수량	증감률
파이프, 보일러, 탱크, 통 용 등의 탭,콕,밸브	22,297.8	22,139.9	-0.7	23,630.1	6.7
싱크대, 세면대, 비데, 욕조 및 기타구조물용믹 탭, 콕, 밸브	14,302.8	15,025.9	n/a	n/a	n/a

출처 : 러시아 통계청

□ (중국) 가격경쟁력과 유연한 경영 전략으로 시장 주도

- 가격 경쟁력 외에도 국제표준(ISP, API 등)에 부합되는 제품 공급
- 또한 현지에 부품 보관창고 운영 및 오더에 대한 빠른 납기일 준수 등의 유연한 영업 전략이 강점
 - 일부 중국회사 러시아 첼라빈스크, 카잔 등에 부품 창고 운영
- 한편 러-중간 우호적인 외교관계에 힘입어 가스, 석유, 전력 분야의 대규모 공공조달 시장에서도 중국산 밸브가 많이 조달되는 것으로 파악

□ (유럽) 품질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중국과 시장 양분

- 일부 밸브 품목에서, 유럽 국가가 중국을 압도
 - 수출량 기준 : 온도조절밸브(덴마크, 이태리, 독일), 다이어프램 밸브(이태리, 독일, 일본, 네덜란드)
 - 수입액 기준 : 프로세스 컨트롤 밸브(네덜란드, 슬로베니아), 게이트 밸브(헝가리, 우크라이나, 미국), 버터플라이 밸브(프랑스, 독일), 글로브 밸브(독일, 이태리), 온도조절밸브(덴마크, 이태리, 독일), 다이어프램 밸브(이태리, 독일, 일본, 네덜란드)
- 유럽 밸브 생산업체의 경쟁력은 디자인, 안전성, 반부식성, 상대적으로 적은 설치비용과 관리비
- 러시아에 진출한 유럽 밸브 생산업체 :
 - Danfoss(덴마크)사 : 볼 밸브 케파 10만개의 공장 2개 설립
(2007년 모스크바주 / 2009년 니즈니노보고로드)
 - Broen(덴마크)사: 볼 밸브 생산공장 설립 (2010년 / 모스크바주)
- 주요 기업으로는 Danfoss(덴마크), Broen(덴마크), Hawle, Klinger(오스트리아), Erhard, Air-Armaturen(독일), Hogfors OY(핀란드), Remer(이태리), Tecofi(프랑스) 등

3

시사점

□ 러시아 인증 외 기타 제품신뢰를 높일 수 있는 인증 획득

- 제품 경쟁력은 대체로 양호하나 시장 점유율이 낮은 우리기업의 시장 신규 진입과 확대를 위해서는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증 획득이 필요
- 러시아 인증인 GOST-R 외에 CIS 및 유럽 인증은 시장 진출 및 확대에 필요한 요소

□ 러시아 현지 대리인을 통한 시장 공략 필요

- 밸브 수요처와의 직거래보다 수입과 현지 유통이 모두 가능한 현지 중개업체를 통해 공급하는 것이 유리
 - 유망 업체인 경우 독점 공급권(Sole Distributor) 부여도 가능
- 이는 높은 초기 진출 비용과 언어장벽 해소 외에 외국업체의 경우 직수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대형 조달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 대형 조달시장 진출 위해 엔지니어링 업체등과의 네트워크 형성

- 러 중개업체를 통해 대형 조달시장 진출이 불가할 경우, 대형 프로젝트 수주 엔지니어링 회사와의 네트워크 형성도 필요
- 한편, 대형 조달시장의 경우 가격, 품질 외에 브랜드 가치도 높게 평가하는 바, 브랜드 가치 제고 노력도 필요

III. 밸브(대만)

1 시장 변화요인

□ 석유화학 및 건설 경기 위축 등으로 수요 감소

-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과잉으로 2012년도 제품 단가가 전년대비 약 20% 하락하는 등 업황이 어려워져,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이 설비 투자를 연기함에 따라 석유화학 공장 파이프에 사용되는 밸브류의 수요 감소가 예상
- 대만 정부는 최근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SOC 관련 예산을 축소하겠다고 발표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간시설 공사에 사용되는 밸브류 수요도 감소할 전망

□ 대만산 기계류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밸브 수입규모 축소

- 2012년 1/4분기 대만산 기계류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2% 줄었 으며, 2/4분기에도 4.89% 감소한 것으로 추정
- 이에 따라 기계류에 들어가는 각종 밸브의 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012년 1/4분기 밸브류의 수입은 2.49% 감소했으며, 연간 3.99% 줄어들 전망

□ ECFA 체결로 중국산 밸브류의 對대만 수출증가

- ECFA 체결로 중국산 유압밸브, 공기압밸브, 체크밸브, 안전밸브 등에 대한 수입관세가 면제되어, 중국산의 가격 경쟁력이 제고

□ 고사양 대형 기계용 하이테크 밸브 수요 증가

- 기계류의 대형화, 디지털화, 첨단화 추세에 따라서 특수용도의 콘트롤밸브, 버터플라이밸브 등에 대한 수요 증가

2 경쟁 동향

□ 수입시장 현황

- 대만은 세계 9대 밸브류 수입국
 - 석유화학, 발전, 조선, 우주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밸브를 사용하며, 그 중에서도 석유화학 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
- 대만의 기계/공구 수입시장에서 밸브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7%
 - 공업연구원에 의하면, 대만의 2010년 기계/공구 수입총액은 879,587백만 대만달러이며, 그 중 밸브류의 수입액은 19,995백만 대만달러로 집계
- 2011년, 대만의 밸브류 주요 수입국은 중국, 일본, 미국, 독일이며,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이 밸브류 수입총액의 80%에 육박

<대만의 밸브류 주요 수입대상국>

(단위 :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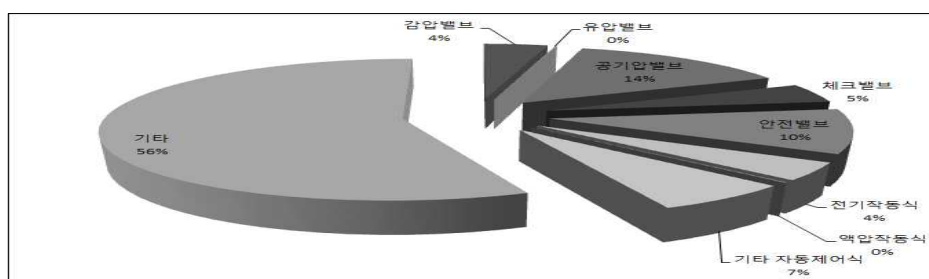
순위	국가	2010년	2011년	점유율	증감률
1	중국	176,708,383	224,989,572	28.4	27.3
2	일본	177,187,510	200,276,709	25.2	13.0
3	미국	103,344,657	111,655,580	14.1	8.0
4	독일	66,718,601	92,758,383	11.7	39.0
5	한국	15,696,628	27,684,872	3.5	76.4
	총계	635,666,417	793,392,407	100.0	24.8

자료원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주 : HS Code 8481 기준

- 대만 내 한국산 수입 밸브류는 공기압밸브, 안전밸브, 기타 자동제어식 제품 순으로 수입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대만내 한국산 밸브류 수입현황>



자료원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 주요 경쟁업체 현황

亞德客工業(Airtac Enterprise)

- 기업개요
 - 설립년도 : 1988년
 - 종업원수 : 120명
 - 매출액('10) : 약 U\$1.4억
 - 웹사이트 : www.airtac.com.tw



- 업체현황
 - 공기압 제품(밸브 포함) 분야 아시아 2대, 세계 3대 제조업체
 - 대만, 중국(닝보, 광둥)에 생산공장, 이태리, 싱가포르에 판매본부, 닝보에 R&D 센터를 운영 중
 - 해외수출 비중이 매출총액의 약 60%에 달하며, 그중 상당부분은 중국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음. 중국에서 동사의 공기압 제품은 일본 SMC 다음으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台灣氣立(Taiwan Chelic Corp.)

- 기업개요
 - 설립년도 : 1986년
 - 종업원수 : 140명
 - 매출액('11) : 약 U\$2,580만
 - 웹사이트 : www.chelic.com



- 업체현황
 - 공기압, 전기식, 기계식 밸브 등을 생산
 - 대만 신베이시와 중국 상하이에 각각 공장을 운영 중
 - 'Chelic'이라는 브랜드로 중국, 유럽, 미국, 호주, 동남아 등지로 매출 총액의 약 50% 수출

耐安凡而工業(Nico Valves)

- 기업개요
 - 설립년도 : 1997년
 - 종업원수 : 20명
 - 매출액 : N/A
 - 웹사이트 : www.ni-co.com



- 업체현황
 - 대만 타이중에 본사를 둔 밸브 전문 제조업체 (중국 상하이 제2 공장)
 - ISO 9001, API-6D, CE-H Model 인증 보유
 - 일본 히타치 밸브에 스텐리스 밸브 등을 납품, 이외에도 영국, 스페인, 이태리 등지에 수출

北部情機(Northman)

- 기업개요
 - 설립년도 : 1974년
 - 종업원수 : 25명
 - 매출액 : N/A
 - 웹사이트 : www.northman.com.tw



- 업체현황
 - 대만 신베이에 본사를 둔 유압용 펌프 전문 제조업체
 - 중국, 인도, 일본, 구미 등지에 판매 거점 확보

자료원 : 각사 홈페이지, D&B, Taiwan Fluid Power Association

3 시사점

- 대만은 글로벌 경기 위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2012년 1~4월 무역액이 전년 동기대비 4% 이상 감소했으며, 수입액의 감소폭 또한 4%에 육박
- 대만의 밸브류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약 13.7% 줄었으며, 우리나라로 부터의 수입은 20% 이상 감소
 - 이는 석유화학 플랜트 및 SOC 투자 연기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
- 한편, 범용 밸브류는 대만 자체 생산 및 중국산 저가 제품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사양의 특수용도 밸브 개발 특화가 필요
 - 주요 수입대상국의 밸브류 평균단가(1kg 기준)를 비교해 보면, 스위스 173달러, 미국 76달러, 일본 65달러인데 비해, 한국산은 39 달러로 가격 격차가 큼.
 - 반면, 중국 5달러, 대만 14달러(평균 수출단가)로, 한국산 제품이 상대적으로 하이엔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남.

IV. 화학기기(UAE)

1 시장 변화요인

□ 한국 제품의 수입 감소세

- 2009, 2010년, UAE의 화학기기 최대 수입국이었던 한국은, 2011년 2위로 하락
-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기술력을 인정받는 유럽 국가 제품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부진했던 일본 제품도 높은 회복세

<화학기기(HS코드:841989) 수입통계>

(단위 : 천 달러)

순위	국가	수입액		
		2009년	2010년	2011년
	연도			
	전체	464,430	244,660	438,917
1	독일	79,944	47,963	126,141
2	한국	146,013	122,084	107,409
3	일본	59,029	5,742	59,423
4	이탈리아	32,479	8,853	47,668
5	미국	23,250	18,447	20,809
6	영국	5,980	7,562	15,864
7	인도	47,237	3,092	15,702
8	스페인	685	2,953	6,913
9	말레이시아	80	465	6,195
10	프랑스	5,318	483	5,653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제품의 현지화 시급

- 한국산 화학기기는 현지의 고온다습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기술개발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
 - 현재까지 품질 대비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여왔으나, 고온다습한 중동 환경에 대한 부적합한 제품 사양이 잦은 수리 및 교환사례 이어져 이미지 하락 초래

2 경쟁 동향

□ 콘덴싱 유닛

- 2000년대 초에 시작된 UAE의 부동산 건설붐은 HVAC(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으며, 현재 전반적인 건설경기의 침체 속에서도 HVAC 제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유지
 - UAE 수입업체들은 주로 제품 본체와 콘덴싱 유닛을 함께 구매하기를 선호해 콘덴싱 유닛 단품에 대한 수요는 비교적 낮은 편
- 현지 수요의 대부분이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미국, 유럽, 한국 등의 유명브랜드가 다수 진출, 이들 브랜드들은 대부분 Al-Gandi, Juma Al-Majid 및 Al-Futtaim 등의 대형 유통업체들과 독점계약을 통해 제품 공급
 - Carrier, York 등 미국산 브랜드의 선호도가 가장 높으며, 현지에 유통되고 있는 에어컨, 냉장 기기의 약 40%를 차지
 - 한국 브랜드로는 LG와 삼성의 시장점유율이 높으며, 일본 브랜드도 선호되는 추세

- UAE 현지에도 HVAC제품 제조업체가 있으며, 자체 브랜드로 판매
 - 대부분의 생산업체들은 제벨알리 프리존, 푸자이라 프리존 등에 위치
 - 업체별로 연간 6천~1만 2천대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국내 총 생산량은 약 6만대로 추산
 - 현지에서 생산된 HVAC제품이 수입산 보다 20% 가량 저렴한 가격대에 유통

□ 차량용 냉각기

- 연간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단, 장거리 식품 유통에 따른 냉장, 냉동 창고 및 차량 수요 높아
 - 유럽, 미국산 제품의 인기가 가장 높으며, 그 외 한국, 호주, 일본 브랜드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하여 판매
 - 미국의 Thermoking이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Mitsubishi Refrigeration,, Transfrig 등의 브랜드도 인지도가 높음.
 - 최근 한국 중소기업들도 경쟁력 있는 가격과 기술력으로 주요 에이전트와 계약 체결, 시장진출 가속화
- 기술력을 요하는 핵심 설비는 수입, 그 외 냉각 보조 설비는 UAE에서 제작
 - 핵심 설비는 전면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비교적 제조과정이 간단한 보조 설비는 샤자, 후자이라 공업지대에서 직접 생산, 현지에서 조립하여 판매

3 시사점

□ 한국 제조업체, 현지기후를 고려한 맞춤 제작 필요

- 중동 현지의 특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제품 판매로 오작동 및 성능 저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
 - 지속적인 문제 발생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이미지 저하 및 편견 형성, 한국산 대체 제품을 물색하는 바이어 움직임 감지

□ 현지 에이전트와 기술 교류 및 A/S 대응방안 체계화

- 체계적인 A/S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을 경우 현지 에이전트는 거래를 기피함.
 - 유럽 및 미국 제조사의 경우 지사운영 및 현지 에이전트 교육을 통하여 A/S 대응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 한국 업체는 일회성 거래를 피하고 거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에이전트와의 기술교류 확대 및 A/S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

V. 금속처리용기기(말레이시아)

1 시장 변화요인

□ 우리제품 진출확대 기회요인

- 최근 3년간 말레이시아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확대
 - 2009년 4억 9,790만 달러에서 2011년 7억 3,380만 달러로 증가
 -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도 2009년 1,250만 달러에서 2011년 3,990만 달러로 증가

<말레이시아의 금속처리용기기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총 수입액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693.1	512.3	497.9	662.1	733.8
1	일본	211.8	190.9	120.8	214.6	191.1
2	중국	30.1	46.0	39.6	38.8	163.9
3	미국	100.2	71.6	44.4	122.9	87.8
4	독일	84.9	53.7	39.3	56.2	61.7
5	싱가포르	66.5	30.5	30.3	40.6	50.7
6	한국	23.6	16.4	12.5	20.9	39.9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주 : HS Code 8479.89 기준

- 광공업은 말레이시아의 주요 산업중 하나로, 지난 6년간 GDP의 35% 이상을 차지

<말레이시아 GDP에서 광공업의 비중 변화>

(단위 :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광공업 비중	39.4	40.2	35.2	35.5	34.8

자료원 : Malaysia Statistics Department

□ 우리제품 진출확대 위협요인

○ 일부 기계류에 대한 수입허가 제도

- Custom Prohibition Act 1967에 의거 말레이시아 현지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컬러 복사기, 승용차 등에 대해 수입허가(Approved Permit) 제도를 실시 중이며, 중장비 기기(Heavy Machinery)도 수입허가 대상 품목으로 선정
- 수입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form J.K. 69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국제통상산업부(MITI)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함.
- 이에, 말레이시아에 중장비 기계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허가를 보유한 현지 수입업체 발굴 필요

○ 말레이시아 국영기업이나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많은 기업의 경우, 말레이시아 현지기업이 아니면 납품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

- 즉 외국기업으로부터 직수입하지 않고, 말레이계 현지 벤더를 통해 납품을 받거나 말레이계 기업과 외국기업이 합작하여 만든 법인으로 부터 납품 받는 경우가 많음.
- 이는 말레이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정책으로서 일반 민간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GLC(Government linked company)의 경우 대부분 적용
- 따라서, 수입제한이 있는 품목이 아니더라도 말레이시아의 GLC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말레이계 현지 벤더 선임이나 합작법인 설립이 필수적

* GLC : 말레이시아 정부가 직접 지배권(direct controlling stake)을 갖고 있는 기업. 직접 지배권은 단순히 지분율이 높은 것 뿐 아니라 이사회 구성원 선임, 경영총 임명, 기업의 주요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말레이시아 정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할 수도 있고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지분을 보유할 수도 있음.

2

경쟁 동향

□ 주요국 경쟁동향

- (국가별 수입) 일본, 중국,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국가 제품과의 경쟁이 매우 치열
 -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독보적이며, 2011년 26% 기록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2007년 4.3%에서 2011년 22.3%로 급증
 - 독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2007년 12.3%에서 2011년 8.4%로 감소
- (제품 단가) 일본 및 독일산의 단가가 가장 높으며, 중국산 단가는 일본 제품 단가의 11% 수준
 -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단가는 이탈리아 제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현지시장에서 중상급 제품으로 평가

□ 현지시장 경쟁동향

- 말레이시아 정부는 기계산업 부문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유수의 외국기업들이 현지에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특정분야에 경쟁력을 갖춘 자국기업들도 다수 있음.

기업명	사업현황
AID	· 일본 기업 · 80-300톤 규모의 Single/double crank mechanical press 제조 · 현지 생산의 90%이상 수출
Cheng Hua	· conveyer 및 lift를 주로 생산하는 말레이시아 기업 · 중국, 인도, 태국에 법인을 운영 중 · 매출의 80% 이상을 수출에서 거양
Favelle Favco	· Crane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말레이시아 기업 · 2011년 기준 매출액 4억8천만 링깃의 글로벌 기업 · 말레이시아, 미국, 호주, 덴마크에 생산거점을 운영

MS Elevators	· 1982년 설립된 도시바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유지 보수기업 · 이후 기술력을 인정받아 도시바 엘리베이터 면허생산 업체가 되었으며, 전체 생산의 50% 이상을 싱가포르,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집트 등에도 수출 · 부품·소재의 90% 이상을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조달
Sunfluid	· Hydraulic Shear 및 Hydraulic Press Brake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말레이시아 기업 · 주로 내수용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일부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인근 동남아 국가로 수출

- 말레이시아에는 자국 기계산업 발달을 위한 Mould, Die, Metal Casting, Metal Stamping, Heat Treatment 등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

산업명	비고
Mould 및 Die	· Kogyo, A-FOSS Zeno, H&L Engineering 등 400여개 관련 기업이 있음. · 최대 10톤 규모의 mould 및 die를 생산할 수 있으며 자국 기계 및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수준의 제품은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
Metal Casting	· 주석, 고무, 팜오일 산업용 제품을 중심으로 발달 · Yoonsteel, MMC Metal 등 70여개의 관련기업이 있음.
Metal Stamping	· Kobakin, VSP Technology 등 300여개 관련 기업이 있음. · 현지 다국적 기업들도 현지에서 관련 제품을 소싱하고 있음.
Heat Treatment	· Tohken, Oriental Heat Treatment 등 20여개 관련 기업이 있음.

자료원 : MIDA

3

시사점

□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과의 경쟁에 대비

- 말레이시아에서 기계에 대한 수요가 있는 업체들은 우선적으로 현지 생산 제품을 선호
 - 말레이시아 자동차 산업의 경우 부품자급률이 80% 수준이며, 일반 기계산업의 부품자급률은 80~90% 수준에 이르고 있어, 현지에서 생산이 되는 제품은 수입수요가 많지 않음
-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으로 외국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어, 현지진출 외국기업과의 경쟁도 치열

□ 최종 수요기업과의 네트워킹 역량이 좋은 중간 수입업체 발굴이 중요

- 일부 기계산업의 경우 수입허가(Approved Permit)가 필요
- 말레이시아 국영기업이나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많은 기업의 경우 말레이시아 현지기업이 아니면 납품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음
- 상기 2가지의 경우에는 외국기업의 직수출이 불가능하므로 현지 수입 업체를 발굴하여 진출하는 것이 필요
 - * Caterpillar社, 말레이시아의 최대기업인 Sime Darby를 딜러로 지정하여 말레이시아 및 아시아지역 10개국에 제품 판매

VI. 플라스틱 금형(러시아)

1 시장 변화요인

□ 플라스틱 완제품 시장 확대로 플라스틱 금형 수요 증가

- 러시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플라스틱 건설자재, 가정용품 및 식재료 포장용기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
- 러시아내 플라스틱 제품생산도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생산량은 전년대비 평균 46% 증가
 - 제품별 증가율 : 파이프 및 호스류 42.2%, 필름 및 판(sheet) 17.9%, 병용기 17.9%, 전력기구 59.7%, 가구 및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 158.1% 증가
 - 최근 플라스틱 제품 생산 러시아 업체 수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

□ 수요 대비 내수공급 부족으로 수입 의존도 높음

- 러시아 플라스틱 금형 시장에서 약 27%만이 현지 자체생산이며, 나머지 73%는 수입(중량기준)

<플라스틱 금형시장 규모>

(단위 : 톤, %)

구분	전체 시장 규모	러시아 자체 생산	수입
중량	11,156.5	3,016.6	8,139.9
비중	100	27	73

자료원 : WTA(World Trade Atlas), 러시아 통계청 자료 종합

주) HS Code 8480.71 기준, 주재국 자료 부족으로 중량기준으로 자체생산량, 수입 비중을 나눔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기회복에 힘입은 내수활성화로 2010년부터 플라스틱 금형의 수입 증가
 - 2010년 수입액은 전년대비 39.0% 증가, 2011년은 전년대비 32.9% 증가
 - 2012.1분기는 전년동기 대비 -7.14% 감소하여 다소 주춤한 상태

<러시아의 플라스틱 금형 수입 동향>

(단위 : 톤,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분기 ^{주)}
수입액(백만\$)	102.9	143.0	189.9	54.5
전년대비 증감율(%)	-19.6	39.0	32.8	-7.14
수입량(톤)	4,412.8	6,222.1	8,139.9	2,959.6
전년대비 증감율(%)	-10.3	41.0	30.8	-3.26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및 모스크바무역관 자료 종합

주 : 2012.1분기의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임

2 경쟁 동향

□ (시장동향) 한국산 제품 시장점유율 1위

- 2011년 플라스틱 금형 대리 수출국중 상위 10개국의 대리 수출액은 1억 9천만 달러이며, 한국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
 - 2011년 시장 점유율 : 한국(20.3%), 중국(16.5%), 이태리(16.1%), 독일(8%) 순
- 2012년 1분기는 유가하락과 고정투자율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우리나라는 1,440만 달러를 수출해 최대 수출국 유지
 - 2012년 1분기 한국의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4%를 기록했으나, 시장점유율은 다소 증가

<플라스틱 금형 주요수출국별 수출액 및 점유율>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출액			점유율			증감률	
		2010	2011	2012.1Q	2010	2011	2012.1Q	11/10	'12.1Q
0	World	143.0	189.9	54.5	100	100	100	32.7	-7.1
1	대한민국	27.1	38.6	14.4	18.9	20.3	26.5	42.3	-24
2	중국	17.4	31.4	10.6	12.1	16.5	19.5	80.1	69.5
3	이태리	14.9	30.6	5.8	10.4	16.1	10.7	105.0	43.2
4	독일	18.9	15.2	5.9	13.2	8.0	10.9	-19.5	8.6
5	포르투갈	13.2	12.5	4.6	9.2	6.6	8.6	-5.0	-23.8
6	프랑스	5.9	8.0	1.4	4.1	4.2	2.7	35.7	-17.4
7	폴란드	4.0	6.2	2.4	2.8	3.2	4.4	53.7	-4.3
8	체코	5.0	5.6	1.2	3.5	3	2.2	13.3	151.9
9	터키	4.3	5.6	2.7	3.0	2.9	5.0	30.7	115.9
10	오스트리아	6.9	5.5	0.9	4.8	2.9	1.7	-20.9	-48.8

출처 : World Trade Atlas

주 : 삼국관세동맹 체결국 벨라루스에서 수입량은 제외

□ (한국제품 평가) 중저가에 비해 품질 등이 좋음

- 한국산 제품은 중저가로 분류되며, 가격대비 뛰어난 내구성과 납품 기한 준수 및 AS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높음.
- 당 무역관이 유선 인터뷰한 아래의 바이어들은 시장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

<러시아 바이어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평가>

회사명	Port Mold
회사개요	이태리 Thermoplast사의 플라스틱 금형과 금형사출기를 러시아 및 CIS국가에 유통하는 회사
홈페이지	www.portmold.ru
전화/팩스	+7-495-743-4865 / +7-496-549-2526
이메일	info@portmold.ru
전화인터뷰자	Mr. Valery Minyayev / Technical Director
한국산 제품에 대한 평가 및 제언	- 한국산 플리스틱 금형을 높게 평가 - 시장지배요소는 가격과 품질이 제일 중요하며 납품기한, A/S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 - 그 외 러시아내에서의 공급계약 사례에 대한 홍보도 시장 개척 시 중요

회사명	Inplam
회사개요	한국 플라스틱 가공장비 제조기업의 모스크바지사
홈페이지	www.plamaindustry.ru
전화	+7-903-254-4066
이메일	sales@plamaindustry.ru
전화인터뷰자	Ms. Anastasiya Obraztsova / manager
한국산 제품에 대한 평가 및 제언	- 한국산 제품은 내구성이 좋아 독일, 오스트리아, 이태리산 제품보다 경쟁력이 있음 - A/S역시 중요한 요소로서, 계약기간 종료 후, 서비스를 중단하는 중국 업체보다 한국 업체의 서비스를 선호 - 한국산 플라스틱 금형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한국산 제품의 이점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

□ 주요 경쟁국별 시장 반응

- (러시아) 가격 및 품질 등에서 외국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
 - 납품기한을 제때에 이행하지 못해 계약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A/S 역시 취약
 - 또한, 제조공정에 필요한 고급 소프트웨어 기반이 약해 생산비용 대비 생산력이 현저히 떨어져, 대형 프로젝트를 다룰 수 있는 업체가 부재
 - 규모 측면에서도 대규모의 러시아 플라스틱 금형기업 역시 적음.

○ 주요 러시아 기업

- Rosplast사 : 2003년 설립, 모스크바 소재, 플라스틱금형·완제품 생산
- TSVIT(Tool-making Technology Introduction Center) : 2003년 설립, 모스크바소재, 일본산 자동차부품과 플라스틱 금형 생산
- Techosnastka : 1989년 설립 모스크바 소재 플라스틱제품과 금형 제조
- Garant-Plast : 2003년 설립, 모스크바 소재 플라스틱제품과 금형 제조
- Inplast : 1994년 설립, 보로네즈 소재 플라스틱제품과 금형 제조

○ (유럽) 장점으로 오랜 생산경험, 뛰어난 기술력과 고품질

- 독일, 스위스산 제품을 최상품으로 취급하며 이탈리아, 포르투갈의 제품 역시 선호되는 품목
- 이중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제품들은 가격이 고가이나 이태리산 제품은 중·고가로 분류

○ (중국, 대만) 중국은 저가제품, 대만은 중저가 제품을 공급

- 특이점은 중국과 대만 기업들은 러시아에 많은 지사들을 두어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A/S면에서도 시장 평가가 좋음.

○ 주요 외국기업

- CNN Plastic System, Cyber Tech(대만), ThermoPLast, Onni Stamp, Gefit (이태리), Tecmolde(포르투갈) 등

3

시사점

□ 한국산 제품 강점의 유지와 마케팅 활동 강화

- 러시아내에서 한국과 중국기업들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비법은 가격 대비 좋은 품질, 납품기한의 준수 그리고 AS서비스에 기인한 것
-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강점의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며 다소 부족하다 평가되는 현지에서의 마케팅과 홍보 강화가 필요
- 동 제품은 중간상을 거치지 않고 플라스틱 제품 생산업체에 직접 공급하는 특성이 있는 바, 현지 개최 전시회 참가 확대와 인터넷, 관련 협회지에 광고 게재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시장상황 모니터링 강화와 과감한 현지시장 진출

- 최근 플라스틱 완제품을 생산하는 러시아 업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러 정부는 자국 관련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 중
- 현지의 어떤 플라스틱 제품 수요가 증가하는지와, 관련 러시아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 노력이 필요
-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지에 사무소, 지사 등을 설립하는 것도 시장 확대를 위해 필요한 요소

<러시아 플라스틱 제품 생산 동향>

품목	단위	2010	2011	증감율(%)
PVC pipes (PVC 파이프류)	톤	41,237	85,432	107.2
Hard pipes, hoses of other thermoplastics (기타 소성 플라스틱의 하드파이프, 호스류)	톤	56,324	73,638	30.7
Pipes, hoses, fittings of other polymers (기타 폴리머소재의 파이프, 호스, 이음쇠류)	톤	81,265	110,915	36.5
Plates, sheets, film, stripes of polymers, not reinforced and not combined with other materials (별도의 재료를 섞지 않은 폴리머소재의 판, 필름, 봉류)	톤	505,498	595,936	17.9
Boxes, baskets and similar products of polymers (폴리머소재의 박스, 바스켓 및 기타 용기류)	천개	176,382	184,031	4.3
Bottles of various sizes and similar products of polymers (폴리머소재의 다양한 크기의 용기류)	천개	7,404,592	8,291,442	12.0
Other polymer packaging (기타 폴리머 소재의 패킹)	천개	13,441,022	20,737,423	54.3
Polymer tanks of over 300 litres in volume (300리터 이상의 폴리머소재 탱크)	천개	22	43	90.3
Windows and their cases, windowsills of polymers (폴리머소재의 창과 창틀, 문틀)	sm2	8,509,874	11,391,837	33.9
Doors and their cases of polymers (폴리머소재의 도어류)	sm2	268,556	297,077	10.6
Shutters and similar products of polymers (폴리머소재의 셔터)	sm2	107,976	172,674	59.9
Polymer table and kitchen ware of polymers (폴리머소재의 테이블과 주방그릇)	천개	4,728,325	7,465,210	57.9
Polymer fittings for electrical insulating (전기절연용 폴리머소재 이음쇠)	톤	1,063	1,698	59.7
Polymer accessories for furniture and cars (폴리머소재의 가구, 자동차용 부품)	톤	69,125	178,405	158.1

자료원 : 러시아 통계청

Ⅶ. 선박기자재(싱가포르)

1 시장 변화요인

□ 글로벌 경기침체, 싱가포르 조선해양산업 영향

- 최적의 지리적 요건을 바탕으로 꾸준한 발전을 지속해 왔던 싱가포르의 조선·해양산업도 글로벌 경제침체와 선박공급 과잉현상 영향
 - 2010년 조선·해양산업관련 매출규모는 2009년 168억 싱가포르달러 대비 19.9% 감소한 134.7억 싱가포르달러에 그침.
 - 조선·해양산업의 블루오션으로 알려지고 있는 해양플랜트 부문도 2009년 92억 싱가포르달러에서 80억달러로 감소

□ 선박수리 및 해양플랜트 수주 중심 성장 지속

- 경제개발청(EDB) 자료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전 세계 Jack-Up Rig시장 및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개조시장의 70%를 차지
 - 선박수리 및 개조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전세계 선박수리의 20%를 담당
- 싱가포르 조선기업인 COSCO는 35,000 DWT급 캐리어 건조 계약을 체결
 - 친환경 고효율 디자인을 갖춘 6개의 64,000DWT급 벌크선 건조계약을 수주 하였으며 2014년 1분기, 2분기까지 각각 전달될 예정으로, 전체 계약규모는 1.9억 달러

- Keppel Offshore & Marine는 1.5억 달러 규모 설비 건조계약 수주
 - 91미터 컨테이너선과 4,000 DWT급 벌크선 3척 제조 및 반잠수식 설비 (Semi-submersible)의 업그레이드 작업 포함
- Sembcorp Marine의 자회사인 Jurong Shipyard는 Prosafe로부터 2.9억 달러 규모의 반잠수식 리그선(Accommodation semi-submersible rig) 건조계약을 체결

2 경쟁 동향

□ 일본, 독일계 부품사의 활약 지속

- 싱가포르 선박기자재 시장에는 일본, 독일, 미국 부품사들이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산, 중국산 제품이 지속적으로 규모를 확장 중
 - 선박용 증기터빈, 피스톤 내연기관의 경우 일본산 제품의 점유율이 크고, 독일산 제품은 엔진을 포함한 대부분의 부품군에서 높은 점유율
 - 한국산의 경우 기타부품(HS Code 8409.99), 기타엔진(HS Code 8408.90)에서 큰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제품은 선박용 액체펌프, 엘리베이터에서 미국과 함께 1~2위를 경쟁

<2011년 선박기자재 부품별 시장점유율>

(단위 : %)

부품명 (HS Code)	한국산 부품 점유율	점유율 1위 국가(점유율)
증기터빈 부분품 (8406.90)	2.2	독일 (52.8)
선박추진용 엔진 (8408.10)	0.4	일본 (52.8)
기타 엔진 (8408.90)	0.2	독일 (38.8)
엔진,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8409.91)	3.7	일본 (54.2)
엔진, 기타 (8409.99)	3.1	독일 (31.5)
액체펌프, 연료·윤활유 급유용 또는 냉각 냉매용의 펌프 (8413.30)	1.5	미국 (20.1)
기계류, 기타 (8479.89)	1.2	일본 (29.4)
기계류, 부분품 (8479.90)	1.4	미국 (26.1)
선박 또는 보트의 추진기와 이들의 블레이드 (8487.10)	0.8	독일 (27.4)

자료원 : IE Singapore

- 일본기업으로는 Daihatsu, Niigata, Hanshin, Mitsubishi, Wakefield 등이 있으며, 미국은 Cummins, 대만의 Bor Chi 등이 있음

<분야별 경쟁업체 리스트>

선박용 추진시스템 (Marine Propulsion Systems)	전자기기 관련 (Marine Electronics)	특수장비 (Specialty Equipment)
Becker Marine, Berg Propulsion	Kelvin Hughes	ABB Marine
Caterpillar Marine	Kongsberg	Dredging International
Cummins, MAN Diesel	Maritime	Hamworthy
MTU, Rolls-Royce Marine	Norcontrol IT	Hatlapa
Twin Disc, Wartsila, Yanmar	Radio Holland, THISS	Tru-Marine, Unitor

□ 주요 바이어 Keppel과 SembCorp

- Keppel Offshore & Marine 과 SembCorp Marine 2개의 조선·해양플랜트 건조사가 싱가포르 시장에서 양강 경쟁구도 형성
- 해양플랜트·선박 건조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기업인 Keppel Offshore & Marine은 Keppel FELS, Keppel Shipyard, Keppel Singmarine을 자회사로 두고 있음.
 - Keppel FELS는 해양플랜트의 디자인과 건조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Keppel Shipyard는 선박의 수리와 개조, Keppel Singmarine은 다양한 특수선박 건조를 담당
 - 아시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멕시코만, 브라질, 카스피해, 북해, 중동 지역에 20개의 조선소를 보유
- Keppel O&M과 더불어 해양플랜트·선박 건조 부문을 선두하고 있는 SembCorp Marine는 싱가포르 외에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 미국에 6개의 조선소를 운영
 - 싱가포르에는 5개의 조선소가 있으며, 그중 Jurong Shipyard와 Sembawang Shipyard가 대표적

3

시사점

□ 해양플랜트 분야로의 수출기회

- 전통적으로 싱가포르는 선박건조보다는 선박수리 및 해양플랜트 건조 분야에 강점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

<싱가포르 조선업 분야별 매출액 비교>

(단위 : 십억 싱가포르 달러)

연도	총 매출액	선박수리	선박건조	해양플랜트
2001	4.03	2.56	0.54	0.93
2002	4.4	2.73	0.53	1.14
2003	3.79	2.29	0.72	0.78
2004	5.3	3.1	0.9	1.3
2005	7.43	3.79	1.26	2.38
2006	9.8	4.9	1.67	3.23
2007	13.05	6.26	1.83	4.96
2008	16.8	7.06	1.67	8.06
2009	16.83	6.73	0.84	9.26
2010	13.47	4.85	0.54	8.08

자료원 : Association of Singapore Marine Industries

- 한국 기자재의 경우, 아직까지 싱가포르 시장에서 인지도가 낮아, 지속적인 전시회 참여로 인지도를 높이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
- 동시에 고객들에게 가격경쟁력과 품질을 갖춘 제품 이미지 구축이 필요
- 또한 지속적인 기술지원과 사후관리, 아이디어 교환으로 고객사에 기존 제품공급사 보다 나은 편리함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

<2012년 싱가포르 조선관련 사업>

(단위: 백만 달러)

건조사	사업내용	규모	발주처
Keppel FELS	수퍼 A 클래스 잭업 리그선 건조	245	Ensco
	KFELS B Class 리그선 건조	199	Safin Gulf FZCO
Keppel O&M	반잠수식 리그선 건조	809	Urca Drilling
Keppel Shipyard	선박 개조 (FSU)	112	MISC Berhad
Keppel Singmarine	석탄운반용 바지선 건조 터그보트 3척 건조	37	Pelayaran Straits Perdana
Jurong Shipyard	반잠수식 리그선 건조	291.6	Prosafte
	선박 개조 (FPSO)	102.7	Modec
Sembawang Shipyard	선박 개조 (ARV)	140	Equino Offshore
	선박 개조 (FSO)	300	Mobile Cepu

자료원 : Association of Singapore Marine Industries

2013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MR (Global Market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3-001	오바마 재선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2013.1
13-002	2013년 1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3.1
13-003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공작기계 (머시닝센터) -	2013.1
13-004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타골프용품 -	2013.1
13-005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안경테 -	2013.1
13-006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폴리에스터 단섬유 -	2013.1
13-007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폴리프로필렌 테이프 -	2013.1
13-008	선진국의 미래산업 육성정책	2013.2
13-009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광케이블 -	2013.2
13-010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타전동공구 -	2013.2
13-011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타컴퓨터주변기기 -	2013.2
13-012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펌프 -	2013.2
13-013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및 시사점	2013.2
13-014	한-콜롬비아 FTA 효과 및 활용방안	2013.2
13-015	떠오르는 이라크 재건시장을 선점하라	2013.2
13-016	주요국 환율변동에 따른 해외시장 동향과 진출여건	2013.2
13-017	엔저하의 수출 경쟁력 현황 및 전망	2013.2
13-018	한미 FTA 발효 1주년, 대미 수출 성과 분석	2013.3
13-019	일본의 대인도 진출전략 및 대응방안	2013.3
13-020	독일 직업교육 훈련제도 현황 및 시사점	2013.3
13-021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주요 시장 동향 <기타 무선통신기기>	2013.3
13-022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플라스틱 가공제품 -	2013.3
13-023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편직물 (인조섬유제) -	2013.3
13-024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는 멕시코	2013.3
13-025	인도의 CSR 정책과 시사점	2013.3
13-026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유리 저장 용기 -	2013.3
13-027	미국-EU FTA 추진현황과 향후 시사점	2013.3
13-028	日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현황 및 시사점	2013.3

13-029	2013년 2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3.4
13-030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X선 및 방사선기기부품 >	2013.4
13-031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초화장품 -	2013.4
13-032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합성수지·합성고무 -	2013.4
13-033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밸브·기타기계류 -	2013.4

□ KOCHI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3-001	대만시장에서 한류 활용하기	2013.1
13-002	[중국 석학에게 듣는다] 2013 중국 경제 전망	2013.2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3-001	해외 주요국 투자인센티브 현황 및 사례조사	2013.1
13-002	외국인을 위한 법인설립 안내	2013.1
13-003	Guide to Business Establishment in Korea	2013.1
13-004	2012년도 북한의 대외교류동향	2013.2
13-005	GCF시대에 대비한 세계그린프로젝트 수주방안	2013.3
13-006	국가IR 개선 방안 연구	2013.3
13-007	2009~2012 KOTRA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성공사례집	2013.3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3-001	2013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3.1
13-002	2013 중국3대 유망시장 설명회	2013.1
13-003	2013년 전략시장 협력 파트너쉽 포럼	2013.1
13-004	Iraq-Korea Business Forum	2013.3
13-005	Reshoring to KOREA - 국내 U턴기업 지원제도 및 투자환경 설명회 -	2013.4



작성자

◆ 타이베이무역관	송익준 차장
◆ 뉴델리무역관	김상환 차장
◆ 싱가포르무역관	이상훈 과장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정윤서 차장
◆ 모스크바무역관	오명훈 과장
◆ 두바이무역관	이유리 대리
◆ 해외시장컨설팅팀	정현철 과장



Global Market Report 13-033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밸브 · 기타기계류 -

발행인 | 오영호
편집인 | 배창헌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3년 4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globalwindow.org

Copyright © 2013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